

#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강력단속해 '12개소 적발'

## 대형 건설공사장, 먼지 발생 취약사업장 37곳 기획 수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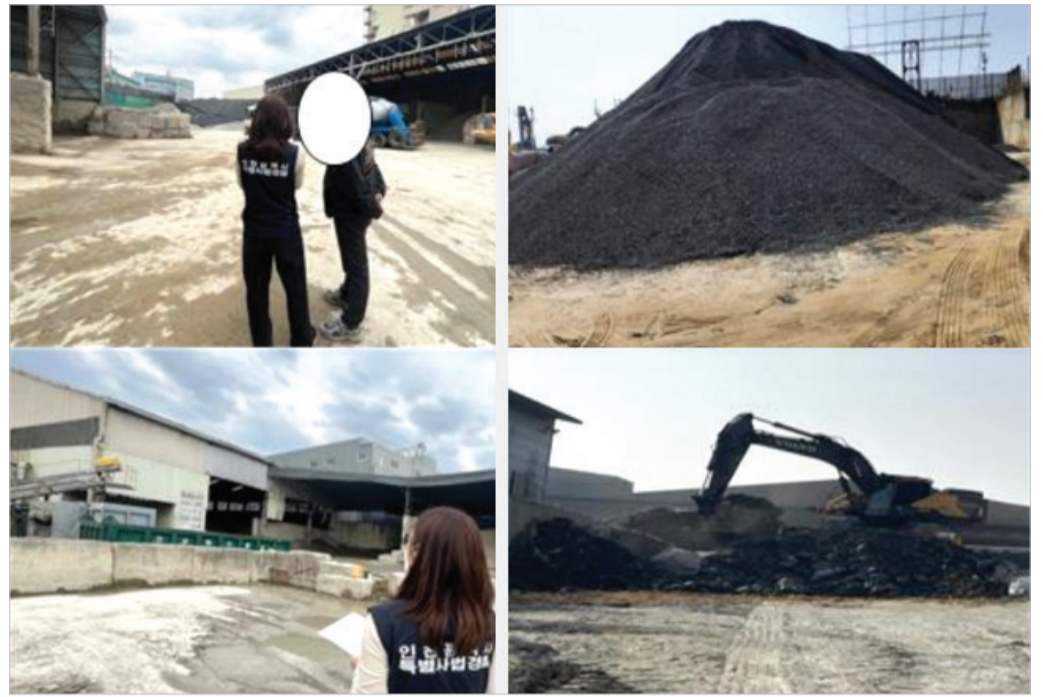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삼수 시설 조치 부적절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만큼,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수사 통해 조치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

## 강화군 교동 삼선2리 수돗물 '칼칼'

- ▶ 마을수도시설서 지방상수도 전환 완료
- ▶ 안정급수 체계 구축...통수식 행사 개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월 강화군 교동면 삼선2리 45가구에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고 지난 4월 29일 지역 주민 주관으로 선암경로당에서 통수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전했다.

교동면 삼선2리는 마을수도시설(지하수)을 이용해 왔으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주민 설득 및 주민대표 협의를 통해 2023년 지방상수도 전환 및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기

로 합의하고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10월부터 지방상수도 사업(급배수관로 1.8km, 신설급수 공사 45가구)을 완료했다.

이번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급수 불편을 적기에 해소함은 물론 깨끗하고 안정적인 급수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이를 기념해 주민대표들과 통수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정간 삼선2리 노인회장, 한재우 노인회사무장을

비롯한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박용철 인천시의회 의원 및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원과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강화수도사업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정간 노인회장은 "이번 지방상수도 통수식은 교동면 삼선2리 지역 발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행사"라며 "통수식을 계기로 주민들이 한데 모여 더욱 화합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인천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



지방상수도 통수 전경

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교동면 삼선2리 지방상수도 전환 기념 통수식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교동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 제81회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 진행

'부동산 시대의 바뀐 키워드' 지식 전하다

인천 서구는 5월 24일 저녁 7시,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형 경제학자인 박정호 교수를 초청해 '부동산 시대의 바뀐 키워드'라는 주제로 제81회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한편,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는 구민의 참여로 선정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구민들의 소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또한, 제81회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는 부동산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검단산도시 인천이음초등학교 강당에서 300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진행된다.

이번에 명사로 초청된 박정호 교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경제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모닝와이드',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한 바 있다. 경제를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기보다 현대사회의 이슈인 'CHAT 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고용 문제, 비트코인 등 일상 현상들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경제학적으로 풀어내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번 서구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시대의 바뀐 키워드'라는 주제로 높아진 금리, 빈집 문제 등 사회환경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핵심 변수들을 파악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서구청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 접수 중이다.

## 인천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3차 지원 증액 나서

- ▶ 3500억 규모 지원...당초 계획 대비 2000억
- ▶ BizOK로 신청 알려...매출채권보험료, 협약보증
- ▶ 지원은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한 육성자금

인천광역시는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이차보전 35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 중으로 올해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1월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1700억 원, 3월 1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3월에 진행한 2차 지원은 공고 후 4시간 만에 조기 소진됐다. 이에 시는 3차분 지원을 당초 계획 대비 2000억 원을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연쇄 부도 방지를 막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 보증해 주는 협약보증 지원 △재해 피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무이자 지원 등은 재원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중소기업이 필요시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이차보전 3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계 구입 등 시설 교체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하반기(1회)에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는 기존 공고 내용과 동일하다.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횟

수를 제한해 정책자금 편중을 막고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물가 상승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차보전 지원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기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